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

2024 고1 국어 비상(박영민) | 2(2) 장마 내신형 기출 문제

이 저작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직전 보강 유형

「장마」의 인물의 성격, 소재의 의미 등 작품의 내용에 대해 묻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서사 구조를 <보기>로 제시한 후, 작품의 내용에 대해 묻거나, 기호를 활용해 부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묻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작품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6·25 전란 중에 우리 집에 피란와 있던 외할머니는 국군인 외삼촌의 전사 소식에 빨치산들에게 저주를 퍼붓고, 삼촌이 빨치산인 할머니는 이에 노발대발하며 갈등이 고조된다. 어린 나는 어떤 사내의 꼬임에 빠져 삼촌이 몰래 집에 다녀간 사실을 말하게 되고, 이 때문에 아버지는 어떤 사내들에게 끌려가 큰 고초를 당한다. 할머니는 점쟁이의 말에 따라 삼촌이 돌아올 날에 맞춰 잔치 준비를 하지만 삼촌 대신 난데없이 큰 구렁이가 집 안으로 들어온다. 이를 죽은 삼촌의 현신으로 생각한 할머니는 졸도한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 떼를 쫓을 때처럼

“쉬이! 쉬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안방에 있던 식구들도 마루로 몰려나와 마당 한복판을 가로질러 오는 기다란 그것을 모두 질린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꼬리를 잔뜩 사려 가랑이 사이에 감춘 워리란 놈이 그래도 꿀값을 하느라고 마루 밑에서 다 죽어 가는 소리로 짚어내고 있었다.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여전히 따로 노는 꼬리 부분을 왼쪽으로 삐딱하게 흔들거리면서 그것

은 방향을 바꾸어 헛간과 부엌 사이 공지를 천천히 지나갔다.

“쉬이! 쉬어이!”

외할머니의 손 목청을 뒤로 받으며 그것은 우물결을 거쳐 넓은 뒤란을 어느덧 완전히 통과했다. 다음은 숲이 우거진 대밭이었다.

“고맙네, 이 사람! 집안일은 죄다 성님한테 맡기고 자네 혼자 몸뚱이나 지발 성혀서 먼 걸음 펜안히 가소. 뒷일은 아모 염려 말고 그저 펜안히 가소. 증말 고맙네, 이 사람아.”

장마철에 무성히 돌아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우물결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었다.

이웃 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친구네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야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이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다.

“갔냐?”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였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거렸다. 인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다. 외할머니가 사람들을 내쫓고 감나무 밑에 가서 타이른 이야기,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대밭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하면서 바래다준 이야기…….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쩍한 불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메었다.

“사분도 벌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거나 했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펜안히 거쳐 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툴퉁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 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 손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통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겐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홍길, 「장마」

1. 윗글의 서사 구조를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싸움. →
- ㉡ 점쟁이가 삼촌의 귀환을 예언함. →
- ㉢ 구렁이가 등장함. →
- ㉣ 할머니는 졸도하고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함. →
- ㉤ 할머니가 외할머니를 큰방으로 불러들임.

- ① ㉠에서의 갈등의 원인은 두 아들이 이념이 다르다는 데 있다.
- ② ㉡를 믿는 할머니가 ㉢를 보고 삼촌이 죽었다는 생각에 충격을 받아 ㉣에서 졸도한 것이다.
- ③ ㉣에서의 할머니의 졸도는 외할머니가 사건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 ④ ㉤에서의 외할머니의 배웅을 통해 할머니와 삼촌의 갈등이 해소된다.
- ⑤ ㉢에서의 갈등은 ㉣가 계기가 되어 ㉤에서 해소된다.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

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할머니가 대문간에 서서 호통을 치는 바람에 혼곤한 잠에서 깨었다. 날은 부엌에 밝았으나 아직도 꼭두새벽이었다. 가뜩이나 짧은 여름밤인데 그런 정도는 자나 마나였다. 잠을 설친 탓으로 머릿속이 띠잉 울리고 눈꺼풀은 슬슬 감겼다. 그러나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편이었다.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솟제 강마른 대교챙이었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끼고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촉촉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할머니의 노여움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것만 가지만으로도 하나밖에 없는 동생, 시동생을 끝까지 돌봐 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면서 정성의 기미가 보일 때까지 광과 장롱의 열쇠를 당신이 직접 맡아 관리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경사시런 날, 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뱀이니까 이만침 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덜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가락 하나 깎고 닦고 뒷전에서 귀경만 허고 있을란다.”

말을 마치고 돌아서면서 할머니는 거둬 혀를 찾다.

“큰자식이라고 있다는 것이 저 모양이니 원, 쫓쫓.”

할머니는 양쪽 팔을 뻗어 내저으며 부리나케 안채로 향했다.

㉡ “지리지 복도 못 타고난 년이지. 나만침 아덜, 메누리 복이 없는 년도 드물 것이여.”

사랑채 앞을 지나면서 또 혼잣말을 했다. 말이 혼잣말이지 실상은 이웃에까지 들릴 고향에 가까운 소리였다.

할머니는 정말로 손가락 한 개도 까닥하지 않았다. 방문을 꽁 닫고 들어앉은 후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죽이 끓든 밥이 끓든 일절 상관하지 않았다. 그런 대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하면서 일일이 못마땅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우리는 수대로 하나씩 빗자루나 연장 같은 걸 들고나와 감시의 눈초리를 뒤통수에 느껴 가면서 마당도 쓸고 마루도 닦고 집 안팎의 거미줄도 걷었다. 고모도 나오고 이모까지 합세하여 모두들 바빠 움직인 보람이 있어 장마로 어지럽혀진 집 안이 말끔히 청소되었다. 이모와 고모는 어머니를 도우러 부엌으로 들어가고, 나는 아버지와 함께 대문에서 마당에 이르는 소리와 텃밭 사이에 깊은 도랑을 내어 물기를 빼느라고 식전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도 우리에게겐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이야기 끝에 그들은, 가족들 정성에 끌려서라도

삼촌이 틀림없이 돌아올 거라는 격려의 말을 잊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그런 말을 하는 몇 사람의 태도에서 아버지는 그들이 우리 일을 가지고 자기네 나름으로 한창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눈치챘을 것이다. 마치 죽어 가는 환자 앞에서 금방 나올 병이니 아무 염려 말라고 위로하는 의사와 흡사한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더러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진시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사람이 늘어 우리 집은 더욱더 붐볐다. 마을 안에서 성한 발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모인 성싶었다. ㉡혼자 친구네 집 마루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낯선 사내의 모습도 보였다. 장터처럼 북적거리는 속에서 우리는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했다. 삼촌이 오면 같이 먹는다고 할머니가 상을 못 차리게 했던 것이다.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진득이 참는 도리밖에 없지만, 그러자니 배가 굉장히 고평다.

마침내 진시였다. 진시가 시작되는 여덟 시였다. 모두들 흥분에 싸여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자꾸만 시간이 흘렀다. 아홉 시가 지나고 어느덧 열 시가 다 되었다. 그런데도 우리 집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사람들이 죄다 흩어진 다음에야 비로소 우리는 점심이나 다름없는 아침을 먹을 수 있었다. 구장 어른과 친구네 식구들만이 나중까지 남아 실의에 잠긴 우리 일가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안방에 혼자 남은 할머니를 제외하고 모두들 침통한 표정으로 건넌 방에 차려진 상머리에 둘러앉았다. 뜨적뜨적 수저를 놀리는 심란한 얼굴들에 비해 반찬만은 명절날만큼이나 걸었다. 기왕 해 놓은 밥이니까 먼저들 들라고 말하면서도 할머니 자신은 한사코 조반상을 거부해 버렸다.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할머니는 여전히 태평이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렇게 보였다. 애당초 말이 났을 때부터 자기는 시간 같은 건 그리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아무 날'이지 그까짓 '아무 시' 따위는 별것 아니라는 것이었다. 하늘이 주관하는 일에도 간혹 실수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이 하는 일이야 따져 무얼 하겠냐는 것이었다. 아무리 점쟁이가 옳다고는 해도 시간만큼은 이쪽에서 너그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었다. 할머니한테는 아직도 그날 하루가 창창히 남아 있었던 것이다. 어느 때 와도 기필코 올 사람이니까 그때까지 더 두고 기다렸다가 모처럼 한번 모자

겸상을 받겠다면서 할머니는 추호도 지친 기색을 나타내지 않았다.

- 윤홍길, 「장마」

2. 윗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머니: 뒷전에서 구경만 하겠다고 했지만 무언의 감시를 하고 있다.
- ② 아버지: 할머니의 말씀에 겉으로는 순순히 따르지만 속으로는 못마땅해 하고 있다.
- ③ 어머니: 시동생에 대해 관심이 없어서 장명등을 관리하지 않았다.
- ④ 삼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정확한 시간보다는 날짜에 맞추려고 한다.
- ⑤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동만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삼촌의 귀환을 확신하고 있다.

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식의 생환을 철석같이 믿는 마음이 힘들고 피곤함을 잊게 했다.
- ② ㉡: 희곡으로 각색한다면 화자와 청중만 들을 수 있는 방백으로 처리한다.
- ③ ㉢: 어린 시절의 생각이라기보다는 성인이 된 뒤의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 사람들의 위로에 대응해 주는 의미 없는 웃음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 삼촌의 행방을 파악하려는 사람이 잠복한 상황으로 짐작할 수 있다.

4.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할머니의 성격이 원래 느긋하기 때문에
- ② 삼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 ③ 삼촌의 성격상 약속을 지킬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 ④ 점쟁이에게 들은 말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때문에
- ⑤ 삼촌이 점쟁이에게 전달한 내용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꿈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가)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워리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워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났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왈칵 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떼의 조무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맹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짓쳐들어 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

을 흔들면서 거꾸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맹이가 날아와 꼭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헛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 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 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 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물러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돌돌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혀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에 되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놓고 있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맹이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맹이를 뺏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향은 서릿발 같았다.

(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

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 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 큰 식구들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 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중략)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 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쩍한 불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당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꼭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

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거나 헛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펜안히 거처 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툃퉁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 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 손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짙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홍길, 「장마」

5. 윗글을 <보기>와 같이 도식화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 구렁이의 출현 → Ⓑ: 아이들의 팔매질 →
 Ⓒ: 할머니의 졸도 → Ⓓ: 외할머니의 배웅 →
 Ⓔ: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화해

- ① Ⓐ는 사건 전개 전환점으로 두 할머니의 갈등을 해소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 ② Ⓑ는 구렁이에게 가해지는 폭력인 동시에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폭력으로까지 그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 ③ Ⓒ는 외할머니에게 사건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 ④ Ⓓ에서 구렁이에 대한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인식 차이를 알 수 있다.
- ⑤ Ⓔ에서 외할머니의 큰방 출입은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신유형

「장마」의 전체 및 부분의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묻는 문제, 인물의 성격 및 심리에 대해 묻는 문제,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를 <보기>로 제시하고 해당 작품과 연결하는 문제,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에 대해 묻는 문제, 서술자 및 시점에 대해 묻는 문제, 작품의 감상 방법을 <보기>로 제시하고 해당 작품에 적용하는 문제, 작품의 마지막에 제시된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의 의미 및 역할에 대해 묻는 문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할머니’와 ‘외할머니’를 중심으로 작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작품의 서술상의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숫제 강마른 대꼬챙이였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고고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축축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나)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도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

카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왁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떼의 조무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맹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짓쳐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꾸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맹이가 날아와 푹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라)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 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쩍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스로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이리저리 움직이는 대로 뒤를 따라가며 외할머니는 연신 소리를 질렀다. 새막에서 참새 떼를 쫓을 때처럼

“쉬이! 쉬이!”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뼉까지 쳤다. 누런 비늘 가죽을 번들번들 뒤틀면서 그것은 소리 없이 땅바닥을 기었다.

(마)

간혹가다 한 대목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다 싶은

이야기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놓았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쩍한 불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꼭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라.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라.”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중략)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희길, 「장마」

6. 밑글에 대한 학생들의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람: (가)에서 ‘장명등’이 꺼져 있는 것은 삼촌이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야.
- ② 지혜: (나)에서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열려 있는’이라는 표현은 소설의 배경이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기도 함을 보여 주지.
- ③ 민경: (다)에서 아이들의 손에 들려 있는 ‘돌맹이’는 ‘구렁이’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하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어.

- ④ 정미: (라)에서 꿈쩍도 하지 않던 구렁이가 ‘할머니의 흰머리’를 태우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통해 가족애로 민족적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지.
- ⑤ 지연: (마)에서 할머니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외할머니와 달리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때문이야.

7. 다음은 서사 갈래의 구성 요소에 따라 위 작품을 이해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끼리 묶은 것은?

<보기>

구성 요소	<장마>의 내용
인물	㉠: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모두 아들에 대한 사랑과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인물로 설정함.
사건	㉡: 소설의 절정 부분에 이르러 ‘구렁이’가 출현하도록 설정함으로써 갈등 해결의 계기를 마련함.
배경	㉢: ‘이념의 대립과 정서적 합일을 통한 화해’라는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함.
갈등	㉣: 민족의 이념적 대립을 ‘할머니’와 ‘동만’의 외적 갈등에 이입하여 나타냄.
서술자	㉤: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하여 남북한의 이데올로기를 직접 다루지 않고 객관적인 거리에서 드러내도록 설정함.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8. <보기>는 서술자를 바꾸어 [A]를 고쳐 쓴 것이다. <보기>를 [A]와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동만이네 집은 완전히 잔치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동만의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동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동만이네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면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삼촌의 귀환을 굳게 믿는 동만의 할머니 앞에서 어떻게 속셈을 솔직히 드러낼 수 있었겠는가.

- ① [A]의 서술자는 작품 안, <보기>의 서술자는 작품 밖에 있다.
- ② [A]는 <보기>와 달리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사건의 진행 양상을 드러낸다.
- ③ [A]는 <보기>와 달리 서술자의 시점이 바뀌면서 어린 서술자의 한계를 보완한다.
- ④ <보기>는 [A]와 달리 등장인물의 심리에 대한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⑤ <보기>는 [A]와 달리 등장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자신이 본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9~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여러 날 겹치는 피로와 긴장 때문에 얼굴 모양들이 모두 말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부황이 든 사람처럼 얼굴이 누렇게 떠 부석부석했고, 어머니는 솟제강마른 대꼬챙이였다. 외가 식구들이라 해서 특별히 나은 사람도 없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만이 청청해 가지고 첫새벽부터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게으른 소 잡도리하듯 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대문간에 나란히 불러 놓고 무섭게 닦아세우는 중이었다. ㉠장명등이 꺼져 있었다.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데도 어느 바람이 언제 고고 갔는지 유리 갖에 물기가 축축했다. 장명등 일로 할머니는 몹시 심정이 상해버렸다. 하느님이 간밤에 몰래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정성을 시험하고 간 증거로 삼아 버렸다.

(나)

하늘은 아직도 흐렸다. 오랜만에 햇빛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고 기대했던 날씨가 아무래도 신통치 않았다. 그러나 서늘 하늘 한 귀퉁이가 빼꼼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 그것만도 우리에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러했다.

이른 아침부터 우리 집에 찾아오는 동네 사람들이 내미는 첫마디가 한결같이 날씨에 관한 얘기였다. 그리고 그다음 차례가 삼촌 얘기였다. 그들은 날씨부터 시작해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아버지한테 접근했으며, 아낙네들은 부엌을 무시로 드나들었다.

우리 집은 완전히 잔칫집답게 동네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저마다 연줄을 찾아 말을 걸어 보려는 사람들 때문에 식구들은 도무지 정신을 못 차릴 정도였다. 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고 있는가였다. 물론, 그들은 미신이란 말은 입 밖에 비치지도 않았다. 점쟁이의 말 한마디가 이만큼 일을 크게 벌여 놓을 수 있었던 데 대해 놀라움을 표시하면서도 속셈이 뻔히 보일 만큼 노골적이지는 않았다.

(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

카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나갔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왓자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떼의 조무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맹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짓쳐들어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을 흔들면서 거꾸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맹이가 날아와 꼭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였다.

(라)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친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마)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 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려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무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헤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외할머니가 아무리 타일러도 그때까지 움직도 하지 않고 그토록 오랜 시간을 버티던 그것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감나무 가지를 친친 감았던 몸뚱이가 스르르 풀리면서 구렁이는 땅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떨어진 자리에서 잠시 머뭇거린 다음, 구렁이는 꿈틀꿈틀 기어 외할머니 앞으로 다가왔다. 외할머니가 한쪽으로 비켜서면서 길을 터 주었다.

(바)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짝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얼마나 수고시렸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중략)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 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희길, 「장마」

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소설의 배경 묘사를 통해 소설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이중적 시점을 사용함으로써 사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민족의 비극을 사랑으

로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는 윗글에 대한 [학습활동] 과제이다. 이를 수행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질문	답변
㉠이 암시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
작품의 주제를 고려할 때, ㉡과 ㉢의 상징적 의미는 무엇인가?	㉡
㉣에서 확인할 수 있는 외할머니의 성격은 어떠한가?	㉣
㉤에서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
㉥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

- ① ㉠: 삼촌이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무언가 문제가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 ② ㉡: ㉣을 희생당한 우리 민족이라고 본다면, ㉡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의미한다.
- ③ ㉢: 자기 아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④ ㉤: 할머니의 머리카락 타는 냄새에서 혈육의 정을 느꼈기 때문이다.
- ⑤ ㉥: 실제보다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11~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낮선 사람의 꿈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촌이 죽어 버렸으면 좋겠다는 말로 받아들여 외할머니와 큰 싸움을 벌인다.

그 뒤로 빨치산과 국군의 전투가 벌어지고 빨치산의 주검을 읍내에 벌여 두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식구들은 삼촌이 죽었을 것이라는 체념에 빠진다. 그러나 할머니는 삼촌이 살아 돌아온다는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앙처럼 믿으면서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한다. 점쟁이가 삼촌이 살아 돌아오는 날이라고 말해 준 그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자 할머니는 밤새도록 등을 환하게 밝혀 놓으라고 한다.

(가)

마루 위에 발돋움을 하고 자꾸만 입맛을 다시면서 근천을 떨던 ㉠워리란 놈이 갑자기 토방으로 내려섰다. 우리는 워리가 대문 쪽을 향해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이내 함성을 들었다.

수저질을 하던 아버지의 손이 허공에서 정지하는 걸 계기로 우리는 일시에 모든 동작을 멈추었다. 아이들이 일제히 울리는 함성이 매우 빠른 속도로 가까이 오는 중이었다. 손가락을 아무 데나 팽개치면서 나는 밖으로 뛰어났다. 우리 집 대문간이 왈차 지껄하는 소리로 금방 소란해졌다. 마당 한복판에서 나는 다시 기세를 올리는 아이들의 아우성과 정면으로 맞닥뜨렸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이 저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한 떼의 조무래기 패였다. 그들의 손엔 돌맹이 아니면 기다란 나뭇개비 같은 것들이 골고루 들려 있었다. 우리 집 대문 안으로 짓쳐들어 오는 걸 잠시 망설이는 동안 아이들은 무기를 든 손

을 흔들면서 거꾸 기세만 올렸다. 그중의 한 아이가 힘껏 돌팔매질을 했다. 돌맹이가 날아와 꼭 꽂히는 땅바닥에서 나는 끝내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다. 꿈틀꿈틀 기어 오는 기다란 것이 거기에 있었다. 눈어림으로만도 사람 키보다 훨씬 큰 한 마리의 구렁이었다.

(나)

외마디 비명을 지르면서 마치 현 옷가지가 구겨져 흘러내리듯 그렇게 마루 위로 고꾸라지는 할머니의 모습을 나는 목격했다. 외할머니가 내 손에서 작대기를 빼앗아 버렸다. 말은 없어도 외할머니의 부릅 뜬 두 눈이 나한테 엄한 꾸지람을 던지고 있었다.

난데없는 구렁이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은 삽시에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다. 무엇보다 큰 걱정이 할머니의 졸도였다. 식구들이 모두 안방에만 매달려 수족을 주무르고 얼굴에 찬물을 뿜어 대는 등 야단법석을 떨어 가며 할머니가 어서 깨어나기를 빌었다.

그 바람에 일단 물러갔던 동네 사람들이 재차 모여들기 시작했고, 제멋대로 떼뭉쳐 서서 떠들어 대는 소리 때문에 혼란은 더욱 가중되었다. 모두가 제정신이 아닌 그 북새 속에서도 끝까지 냉정을 잃지 않는 사람은 애오라지 외할머니 혼자뿐이었다. 미리 정해 놓은 순서라도 밟듯 외할머니는 놀라우리만큼 침착한 태도로 하나씩 하나씩 혼란을 수습해 나갔다. 맨 먼저, 사람들을 몰아내는 일부터 서둘러 했다. 외할머니는 구장 어른과 진구네 아버지 등의 도움을 받아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모조리 밖으로 내쫓은 다음 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다. 대문 밖에 내쫓긴 아이들과 어른들이 감나무가 있는 울바자 쪽으로 우르르 물러갔다. 고비에 다다른 혼란의 사이를 틈탄 구렁이는 아욱과 상추가 자라고 있는 텃밭 이랑을 지나 어느새 감나무에 올라앉아 있었다. ㉡감나무 가지에 누런 몸뚱이를 돌돌 감고서는 철사처럼 가늘고 긴 헛바닥을 대고 날름거렸다. 무엇이 되 알지게 얻어맞아 꼬리 부분이 거지반 동강 날 정도로 상해서 몸뚱이의 움직임과는 각 놓고 있었다. 아이들의 극성이 감나무에까지 따라와 아직도 돌맹이 나 나뭇개비들이 날아들고 있었다.

“돌맹이를 뺏기는 게 어떤 놈이냐!”

외할머니의 고향은 서릿발 같았다.

(다)

㉢외할머니는 두 손을 천천히 가슴 앞으로 모아

합장했다.

“에구 이 사람아, 집안일이 못 있어서 이렇게 먼 길을 찾아왔는가?”

꼭 울어 보채는 아이한테 자장가라도 불러 주는 투로 조용히 속삭이는 그 말을 듣고 누군가 큰 소리로 웃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외할머니의 눈이 단박에 세모꼴로 변했다.

“어떤 창사구 빠진 잡놈이 그렇게 히득거리고 섰냐? 누구냐? 어서 이리 썩 나오니라. 주리 댈 놈!”

외할머니의 대갈 호령에 사람들은 쥐 죽은 소리도 못 했다. 외할머니는 몸을 돌려 다시 구렁이를 상대로 했다.

“자네 보다시피 노친께서는 기력이 여전하시고 따 큰 식구들도 모다덜 잘 지내고 있네. 그러니께 집안 일일랑 아모 염려 말고 어서어서 자네 가야 할 디로 가소.” (중략)

“자네 오면 줄라고 노친께서 여러 날 들여 장만한 것일세. 먹지는 못할망정 눈요구라도 허고 가소. 다 아 자네 노친 정성 아닌가? 내가 자네를 쫓을라고 이러는 건 아니네. 그것만은 자네도 알아야 되네. 남새가 나드라도 너무 섭섭타 생각 말고, 집안일일랑 아모 걱정 말고 머언 걸음 부데 펜안히 가소.”

이야기를 다 마치고 외할머니는 불씨가 담긴 그릇을 해집었다. 그 위에 ㉠할머니의 흰머리를 올려놓자, 지글지글 끓는 소리를 내면서 타오르기 시작했다. 단백질을 태우는 노린내가 멀리까지 진동했다. 그러자 눈앞에서 벌어지는, 그야말로 희한한 광경에 놀라 사람들은 저마다 탄성을 올렸다.

(라)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두 눈에서 하염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훌쩍한 불 고랑을 타고 베갯잇으로 줄줄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 사돈을 큰방으로 모셔 오도록 아버지한테 당부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 큰방으로 건너왔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래끼 단단히 벌인 이후로 처음 있는 큰방 출입이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치켜 간신히 외할머니를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꼭 메었다.

“사분도 별시런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다.

“야한티서 이야기는 다 들었소. 내가 당혀야 할 일

을 사분이 대신 맡았구랴. 그 험헌 일을 다 치르노라고 열매나 수고시켰으꼬?”

“인자는 다 지나간 일이닝게 그런 말씀 고만두시고 어서어서 뭘이나 잘 추시리기라우.”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랴.”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다.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채 두 할머니는 한동안 말을 잊지 못했다. 그러다가 할머니 쪽에서 먼저 입을 열어 아직도 남아 있는 근심을 털어놓았다.

“탈 없이 잘 가거나 헛는지 몰라라우.”

“염려 마시랑게요. 지금쯤 어디 가서 펜안히 거처 험시나 사분댁 터주 노릇을 툃퉁이 하고 있을 것이오.”

그만한 이야기를 나누는 데도 대번에 기운이 까라져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가까스로 할머니가 잠들기를 기다려 구완을 맡은 고모만을 남기고 모두들 큰방을 물러 나왔다.

그날 저녁에 할머니는 또 까무러쳤다. 의식이 없는 중에도 땀 손갈 흘려 넣은 미음과 탕약을 입 밖으로 죄다 토해 버렸다. 그리고 이튿날부터는 마치 육체의 운동장에서 정신이란 이름의 장난꾸러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숨바꼭질하기를 수없이 되풀이하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의 연속이었다. 대소변을 일일이 받아 내는 고역을 치러 가면서 할머니는 꼬박 한 주일을 더 버티었다. 안에 있는 아들보다 밖에 있는 아들을 언제나 더 생각했던 할머니는 마지막 날 밤에 다 타 버린 촛불이 스러지듯 그렇게 눈을 감았다. 할머니의 긴 일생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하면,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러고도 놀라운 기력으로 며칠 동안이나 식구들을 들볶아 대면서 삼촌을 기다리던 그 짝막한 기간이 사실은 꺼지기 직전에 마지막 한순간을 확 타오르는 촛불의 찬란함과 맞먹는, 할머니에게 가장 자랑스럽고 행복에 넘치던 시간이었으나 보다. 임종의 자리에서 할머니는 내 손을 잡고 내 지난날을 모두 용서해 주었다. ㉡나도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모든 걸 용서했다.

㉠정말 지루한 장마였다.

- 윤홍길, 「장마」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간결한 현재형 문장으로 장면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사건을 입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 ③ 빈번한 장면 전환을 통해 인물들 사이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 ④ 감각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작중 인물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의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12. ㉠의 역할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 ㄱ. 한 줄이 띄어져 있어 여운을 준다.
- ㄴ.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드러낸다.
- ㄷ.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임을 암시한다.
- ㄹ. 동만 가족의 불행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음을 나타낸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ㄷ, ㄹ

1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 있다.
- ② ㉢: 외양 묘사와 비유를 통해 긴장감을 유발한다.
- ③ ㉣: 구렁이가 원한을 풀고 저승길로 편히 가기를 기원하고 있다.
- ④ ㉡: 구렁이의 원한을 풀어 주는 매개체로 '삼촌의 죽음'을 상징한다.
- ⑤ ㉣: '나'가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4. 밑글의 서술자를 어린아이로 설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의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서
- ②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 ③ 등장인물의 행동이나 태도뿐만 아니라 내면 심리까지 자세히 서술하기 위해서
- ④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에 맞추므로써 그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 ⑤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대비되는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15. 밑글에 나타난 인물 간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6·25 전쟁은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된다.
- ② 두 할머니의 갈등은 갈라진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③ 할머니의 내적 갈등은 다른 인물과의 외적 갈등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
- ④ 구렁이에 대한 외할머니의 행동으로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 ⑤ 임종 직전 할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용서해 줌으로써 '나'와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된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육이오 전쟁으로 '나(동만)'의 외가 식구들이 친가 식구들과 같이 살고 있던 '나'의 집으로 피란을 오면서 모두 함께 살게 된다. 삼촌은 빨치산, 외삼촌은 국군이어서 서로 거북한 상황이었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다툼 없이 잘 지낸다. 어느 날 낯선 사람의 꾀에 빠진 '나'가 삼촌이 밤에 몰래 집에 왔었다고 말한 일로 아버지가 고초를 겪는다. 할머니는 삼촌을 팔아먹었다며 '나'를 외면하고, 그런 '나'를 외할머니가 감싸면서 두 분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외삼촌의 전사 소식이 날아들자, 상심한 외할머니는 장맛비가 쏟아지는 하늘을 향해 빨갱이를 다 쓸어버리라고 저주를 퍼붓는다. 삼촌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던 할머니는 이것을 삼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④

㉠에서 외할머니의 배웅을 통해,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나'도 할머니와 화해하게 된다. 하지만 윗글에는 할머니와 삼촌 사이의 갈등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① 할머니는 아들이 빨치산, 외할머니는 아들이 국군인데, 외할머니가 아들의 전사 소식을 듣고는 빨치산을 저주하고, 그로 인해 할머니와 외할머니가 갈등을 하게 된다. 즉 ㉡에서 아들들의 이념적 대립 때문에 사돈지간에 갈등을 하고 있다.

② ㉣를 철석같이 믿은 할머니는 삼촌을 맞을 준비를 하지만 삼촌 대신 구렁이가 등장(㉤)하게 되고, 충격을 받은 할머니가 ㉠에서 졸도하게 된다.

③ ㉠에서 할머니가 졸도하자 외할머니가 나서서 구렁이를 배웅하게 된다.

⑤ ㉡에서 아들들의 이념적 대립 때문에 시작된 두 할머니의 갈등은 ㉠을 계기로 ㉠에서 해소된다.

2. 정답 ①

할머니는 '경사시런 날, 아적부텀 예펜네가 집 안에서 큰소리를 하면 될 일도 안 되는 뱀이니까 이만침혀 두고 참는다만, 후사는 느덜이 알아서들 혀라. 나는 손구락 하나 깐닥 앓고 뒷전에서 귀경만 허고 있을란다.'라고 말하며 뒷전에서 구경만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론 봉창에 달린 작은 유리 너머로 늘 마당을 감시했다.

② 윗글에는 아버지가 속으로 할머니를 못마땅해 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③ 장명등의 기름이 아직 반나마 들어 있는 것을 보아 어머니가 시동생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장명등을 관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윗글을 통해 삼촌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삼촌이 정확한 날짜에 맞추려 하는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구경을 하러 왔을 뿐 동만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지 않다. 동만의 가족을 진심으로 걱정한 것은 구장 어른과 친구네 식구뿐이다.

3. 정답 ②

㉠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들으라고 하는 혼잣말이므로, 방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① ㉠ 자식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과는 달리 할머니만이 피곤함을 잊고 '칭칭'했다.

③ ㉡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이 드러난 부분이다.

④ ㉢ 그저 호기심에 구경을 하러 온 마을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의미 없는 웃음이다.

⑤ ㉤ 삼촌을 잡으려는 경찰이 잠복해 있는 모습이다.

4. 정답 ④

할머니는 점쟁이가 예언한 날 삼촌이 돌아올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진시가 벌써 지났는데도 여전히 태평했다.

①, ②, ③, ⑤ ㉡의 이유로 적절하지 않다. ㉡는 삼촌이 돌아온다는 할머니의 믿음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5. 정답 ④

㉠에서 외할머니는 할머니와 마찬가지로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며 정성껏 배웅한다.

① ㉠은 사건 전개 전환점으로,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하게 되어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되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② ㉡는 표면적으로는 구렁이에게 가해진 폭력이지만, 구렁이를 우리 민족으로 본다면 우리 민족에게 가해진 폭력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③ ㉢를 통해 외할머니가 구렁이를 배웅하게 된다.

⑤ ㉤에서 그동안 큰방에 출입하지 않던 외할머니가, 할머니의 요청에 큰방 출입을 하게 되며,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었음을 보여 준다.

6. 정답 ⑤

앞부분 줄거리를 통해 외할머니의 아들인 외삼촌이 전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할머니가 외할머니와 달리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① 꺼져 있는 '장명등'을 통해 삼촌이 무사히 돌아오

지 못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②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열려 있는'을 통해 소설의 배경이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③ '구렁이'를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한다면, 아이들 손에 들려 있는 '돌멩이'는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④ '할머니의 흰머리'를 태우자 구렁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을 통해 가족애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7. [정답] ③

㉠ 윗글은 어느 시골 마을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공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

㉡ 민족의 이념적 대립과 화해의 과정을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과 화해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 '할머니'와 '외할머니'는 모두 아들을 지극히 사랑하는 인물이며,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으로 여기는 것을 통해 두 할머니 모두 무속 신앙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절정 부분에서 등장한 구렁이를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는 외할머니가 구렁이의 한을 달래 배웅함으로써, 두 할머니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된다.

㉤ 윗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서술로 이데올로기를 직접 다루지 않고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다.

8. [정답] ⑤

<보기>는 인물들의 내면을 직접 제시하는 등,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자신이 본 행동만을 객관적으로 전달한다고 할 수 없다.

① [A]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안에서, <보기>는 3인칭 시점으로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다.

② [A]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있는 <보기>와 달리 등장인물인 '나(동만)'의 시각에서 사건의 진행 양상을 드러낸다.

③ [A]는 어른이 된 '나'가 과거를 회상하는 시점을 통해 어린 서술자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

④ <보기>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으므로, 인물의 내면 심리를 서술자가 직접 서술함으로써 독자의 상상적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9. [정답] ⑤

윗글은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하여 상황 및 사건과 객관적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뿐, 등장인물에 대한 비판을 객관적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① '그러나 서녘 하늘 한 귀퉁이가 뻐끔히 열려 있었고, 구름을 몰아가는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다시 비가 내릴 기미 같은 건 어디에도 안 보였다.'에서 배경 묘사를 통해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② 어린아이의 시점과 어른이 된 시점이 함께 제시되는 이중적 시점을 활용하여 사건을 다각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③ 윗글은 '아적부텀', '총그리고' 등 방언을 사용하여 사건의 사실성을 높이고 토속적 분위기를 내고 있다.

④ 윗글은 '머리카락', '구렁이' 등의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민족의 비극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10. [정답] ③

외할머니는 할머니의 아들인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구렁이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다.

① 꺼져 있는 장명등을 통해 삼촌이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불길한 징조를 암시하고 있다.

② '구렁이'를 우리 민족으로 해석한다면, ㉣은 우리 민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라고 의미를 확대할 수 있다.

④ 외할머니는 구렁이를 달래기 위해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우는데,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을 느낀 구렁이가 한을 풀고 대밭으로 사라지게 된다.

⑤ 실제보다 더 길게 느껴질 만큼 힘든 날,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11. [정답] ⑤

윗글은 '나(동만)'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다른 인물들의 행동을 전달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서술되고 있다.

① 윗글은 과거형 문장으로 서술되고 있다.

② 윗글은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고 있지 않다.

③ 윗글은 빈번한 장면 전환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④ 윗글은 어느 시골 마을의 한 가족들의 모습을 통해 시대적 비극을 제시하고 있을 뿐, 감각적 묘사를 통해 시대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12. 정답 ①

ㄱ. ㉠은 한 줄 띄어져 있어 독자들에게 여운을 준다.

ㄴ. ㉠은 작품 전체의 내용을 함축적이고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ㄷ. ㉠은 과거형 문장을 통해 장마 기간 동안 사건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사건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드러낸다.

ㄹ. ㉠은 동만 가족의 불행, 민족의 비극이 종결되었음을 의미한다.

13. 정답 ④

㉠ 구령이(삼촌)의 원한을 풀어 주는 매개체로, 할머니의 모성애, 혈육의 정을 의미한다.

① ㉠ 대문 밖에 무슨 일이 생겼음을 예고하며 새로운 사건 전개를 암시한다.

② ㉠ '철사처럼'에서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는 등 구령이의 외양 묘사를 통해 긴장감을 유발한다.

③ ㉠ 삼촌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는 구령이가 한을 풀고 저승길로 편히 가기를 바라고 있다.

⑤ ㉠ 할머니와의 화해를 통해 '나'의 정신적 성숙을 드러내고 있다.

14. 정답 ②

윗글은 이념의 대립으로 인한 두 할머니의 갈등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도,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어린아이를 서술자로 설정했다.

① 윗글은 다양한 관점에서 사건을 드러내기 위해 이중적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③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자세하게 서술하기 위해선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서술의 초점을 특정 인물에 맞추어 그의 내면에 공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선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⑤ 윗글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과 어른들의 이기적인 모습을 대비하고 있지 않다.

15. 정답 ③

윗글에서 할머니는 아들 문제로 인해 다른 인물들과 외적 갈등을 하고 있을 뿐, 할머니의 내적 갈등을 이유로 다른 인물들과 외적 갈등을 형성하고 있지 않다.

① 윗글에서 두 할머니가 갈등하는 근본적 원인은 이념 대립으로 인한 6·25 전쟁이다.

② 아들이 국군인 외할머니와 아들이 빨치산인 할머니의 갈등은 남과 북의 이념적 대립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④ 졸도한 할머니 대신 삼촌의 환생이라고 믿는 구령이를 배웅해준 외할머니의 행동으로 인해, 두 할머니의 갈등이 해소된다.

⑤ 임종 직전 할머니가 '나'의 손을 잡고 용서해 줌으로써, 할머니와 '나' 사이의 갈등이 해소되고, '나'가 정신적으로 성숙했음을 보여 준다.

16. 정답 ④

ㄱ. '서너 하늘 한 귀통이가 열려 있는'을 통해 소설의 배경이 가족과 민족의 상처가 치유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ㄴ. '구령이', '머리카락' 등의 상징적 소재를 통해 '이념 대립으로 빚어진 한 가족의 비극과 민족적 정서를 통한 갈등 극복 및 화해'라는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ㄷ. 윗글은 1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등장인물 '나(동만)'의 관찰을 통해 인물들의 행동이 제시되어 있다.

ㄹ. 윗글은 어린아이인 '나'의 시점과 어른이 된 '나'의 시점이 공존하는 이중적 시점을 활용하고 있다.

ㅁ. 윗글은 과거와 현재를 반복 교차하고 있지 않다.

ㅂ. 윗글은 현실에 대응하는 과정을 통한 인물의 성격 변화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17. 정답 ②

㉠ 마을 사람들이 '나'의 집에 모인 것은 호기심을 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어느 정도 미신을 믿는지 구경하러 온 것이다.

① ㉠ 삼촌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식구들을 채근하는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 아들의 생환을 기다리